

#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김인숙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부교수

## The Effect of Tea Culture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elf-Efficacy of Juvenile Probationers

In-Sook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Rehabilitation, Busan Women's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비행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낮은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자기효능감에 어떤 변화 과정을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양적 분석 및 질적 분석을 병행한 통합적 접근방식이 실행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서 체계적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 질적 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태도와 적극적 참여 정도 부분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양적 분석 결과,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보호관찰 청소년, 차문화치료, 사회적응력,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ea culture therapy program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self-efficacy of juvenile probationers, which is a key factor of social adaptability of juvenile probationers. After developing a tea culture therapy program,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program empirically, by applying to juvenile probationer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mploys an integrative approach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t is shown from the qualitative analysis that juvenile probationers' positive attitude and active participation are considerably progressed. The results from quantitative analysis indicate that the sub-dimensions of self-efficacy such as general self-efficacy and social self-efficacy are significantly improved.

**Key Words** : Juvenile probationers, Tea culture therapy, Social adaptability, Self-efficacy

### 1. 서론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서 신체발달, 성적발달 등 2차 성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질풍노도의 시기로서 사회적

역할과 대인관계가 크게 확산되며 갈등과 혼돈을 겪는 발달 특성을 갖는다. 사회가 정보화, 핵가족화로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비

Received 29 March 2014, Revised 25 April 2014

Accepted 20 May 2014

Corresponding Author: In-Sook Kim(Busan Women's College)

Email: ts3260@hanmail.net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행 또는 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연령이 낮아지고 흉악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1]. 청소년기의 특성에 더불어 보호관찰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및 위기 청소년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행동 가능성과 부정적, 공격적, 반사회적 행위,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나 형제의 전과나 비행력, 불안정한 가족구조, 낮은 가계소득, 열악한 주거환경, 낮은 지능, 낮은 학업성취도 등, 가정, 학교환경, 개인 심리적 특성의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비행유발 이유로 보편적으로, 열등감을 지닌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의 긍정적 정체감을 유지하기 위해, 자아의 손상감을 보상하기 위해, 그리고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였다. 즉 높은 자기효능감이 위협받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은 자기나 타인을 비롯한 상황을 현실적,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경험을 왜곡하여 지각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며, 도덕성과 가치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자아개념이 대체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교육기관 등 전문교육프로그램의 협조 하에 대상자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설하여 수강하게 하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소년을 위한 준법교육, 가치관 및 윤리도덕교육, 예절교육, 성교육, 약물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수강하게 하는 제도이다. 소년법에서는 수강명령시간을 100시간 내로 정하고 있고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는 주 1-2회, 1회 3-4시간, 8주 내지 10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집단상담 방법이며, 주제별로는 인지행동치료와 예술심리치료, 미술치료, 무용치료, 영화치료, 스포츠 치료, 희망증진프로그램 그 외 보호관찰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치료 등이 있다. 이들 치료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효과로는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성취동기 향상, 충동성

과 공격성 감소, 분노조절 등을 대부분 목표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그 동안의 수강명령의 기존 프로그램들은 너무 형식적이고 획일적이고 단조로워서 실질적,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3].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은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통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주로 양적인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 전 후 변화과정을 측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양적인 측면에서의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어서, 연구대상들이 직접 자기점검 방법으로 검사도구에 응답하는 데서 발생하는 평정의 오류 등과 같은 측정방법상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경우 양적인 측정에서 측정할 수 없는 태도, 행동, 감정 등의 변화의 질적인 요소들과 그 변화과정에 대한 효과검증이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간과되어 왔고, 대부분 그 사례수가 적고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치료효과를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과정을 면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차문화치료란 차문화치료가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을 도와 심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차문화적 경험과 관계들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시행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차 다루는 일과 관련된 제반 동작, 즉 행다를 통한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차를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면서 대접하고 대접받는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적응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사회적인 기능을 도와주고, 외로움과 고독 극복 및 정서 안정을 위한 비공식적 지지체계 개발을 위한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해주며,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성장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인지적 기능 향상 등에 목적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이다[4].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살펴보겠다.

## 2. 이론적 배경

### 2.1 보호관찰 청소년의 특성

보호관찰은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소년원이나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면서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하에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형사사법제도이다. 청소년비행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반사회적 행위와 비사회적 행위인 불량행위를 포함하며, 소년의 비행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로부터 분리취급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 비행청소년은 비행행위를 하는 청소년을 일컫는 말인데, 대부분은 법률적인 개념보다 넓은 의미에서 비행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비행청소년 중 보호관찰 청소년은 법률적인 개념에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만 10세 이상 19만의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다(소년법 제2조 및 제4조). 따라서 보호관찰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의 대표적인 케이스일 뿐 아니라 위기청소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5].

청소년기는 인간발달의 단계 중 가장 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이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이며, 급격한 신체적·성적 변화에 따른 긴장과 불안과 함께 인지와 자의식의 발달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6]. 청소년기는 자아를 찾고 자기를 발견하며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많은 시기이며,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등이 갈등, 방황, 통합의 과정을 거쳐 자기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원만한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면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부적응의 행동을 하게 된다[7]. 이러한 부적응 행동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비행으로 표출되며,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상당수가 자거나 타인을 비롯한 상황을 현실적, 객관적으로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경험을 왜곡하여 지각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며, 도덕성과 자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개인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며, 일반 청소년에 비해 대체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는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8].

한편,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결과 실패의 경험을 하게 되며, 이러한 실패의 경험이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을 낳게 된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스스로 저지른 문제행동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거부되는 경험으로 자아가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좌절감, 자아존중감의 하락, 무력감, 자기효능감의 손상 등이 발생한다[9]. 이처럼 위축되고 좌절된 상태에서는 자기에 대한 포기와 충동적 반응이 강화되며, 특히 미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형성으로 인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적 기능수행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 비행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주요 원인이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현실세계로부터 문제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적절한 대안을 찾고 자신의 행동을 재 조직하여 긍정적인 문제해결 결과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긍정적 해결방법 사용의 경험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각 대안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기 위한 질문에 대해 친사회적인 결과들, 예를 들어 협상이나, 도발적 상황을 무시하고 넘기는 것, 좋은 말로 해결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을 갖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10]. 따라서 문제 상황에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낮은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문제에 대한 긍정적 해결정보들을 수집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문제해결에 대한 긍정적 확신이 부족하여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포기하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11,12]. 그리고 보호관찰 청소년이 현실상황을 자신이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9].

## 2.2 보호관찰 청소년과 자기효능감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성적 변화에 따른 긴장과 불안과 함께 인지와 자의식의 발달로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이다.

\*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

† 형벌법규에 저촉되지만 13세이하 10세까지의 형사미성년자가 한 행위

‡ 형벌법규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의 행위

청소년 비행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반사회적 행위와 비사회적 행위인 불량행위를 포함하며, 소년의 비행행위를 성인의 범죄행위로부터 분리하여 취급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상 비행 청소년을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제4조에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등으로 구분하고 범죄소년은 죄를 범한 소년이고,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우범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행의 요인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개인적인 요인, 가정적인 요인, 사회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인 요인은 자아개념이나 성격적인 측면으로 일반적으로 비행을 일으키는 대다수의 청소년은 자기효능감과 자기통제 능력 및 문제해결력이 낮은 반면, 상대적으로 공격성과 충동성 및 실패를 추구하는 동기가 높다[13].

한 개인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자신에 대한 태도 또는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을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14]. 자기효능감이란 자아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자아개념이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스스로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높게 낮게 평가하는 것을 자기효능감이라 한다[15].

특히 비행청소년들의 낮은 자기효능감이 비행의 원인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전개시킨 Kaplan(1980)은 인간이 소속집단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면 자기효능감은 낮아진다고 보고, 지속적인 실패를 경험한 낮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이 체제에 양갈음하는 것으로 종종 비행을 저지른다면서, 결국 낮은 자기효능감은 폭력으로 귀결되는 분노나 적대감의 원천이라고 보고, 사회적인 부적응과 함께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16].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한 인간관계나 주위환경과의 다양한 경험에 의해 발전되고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지지와 존경을 받게 되면 손상된 자기효능감도 회복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17],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요법에는 목표설정하기, 자아욕구의 일반화하기, 즉각적이고 정확한 피드백, 모델링, 성

공 경험, 치료상의 메커니즘으로 긍정적인 개인적 강화 등이 포함된다[18].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중 법률적 의미에서 범죄행위를 하여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수감명령을 받아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2.3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10회기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 증가하기 위하여 차문화치료를 통한 긍정적 경험으로 참나다레, 나를 위한 차 만들기, 빈챗상을 통한 분노표출 다루기, 진로탐색 내용으로 구성하고 예절을 통한 행동 조성 및 자기효능감 향상하기 위하여 접빈다레, 가족다레, 행복다레를 통해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 어르신께 차 대접하기로 구성하였다. 10회기에는 자각증 수여와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느낀 점을 나누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존경심, 수용의 정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허용적인 가정적인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목표설정하기, 자아욕구의 일반화하기, 즉각적이고 정확한 피드백, 모델링, 성공경험, 치료상의 메커니즘으로 긍정적인 개인적 강화와 자신의 체력과 신체기능을 조절하는 느낌이 높아지는 것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모나 진행자 또는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격려 지지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자신만의 진로탐색을 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 회기마다 명상, 나의 일주일 지낸 생활이야기 하기, 자신 안아주기를 하였으며, 가족화 그리기, 미래의 나의 모습 그리기, 차의 유래와 성분 효능알기, 다도구 쓰임 알기, 빈 차잔 요법, 차생활 예절 익히기, 차 우려내고 대접하기 등 하위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 회기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문화적 좋은 관계 경험과 환경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시행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차문화치료

(Table 1) Tea Culture Therapy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Self-Efficacy

Session	Subject	Contents
1	Program and Self-introduction Finding and Sharing Personality Ty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isiting purpose and Activity Introduction, Program Goal, Our Pledge</li> <li>▶ Tea Meditation, Drinking Tea, Making Nickname, Entering Etiquette</li> <li>▶ Sharing MBTI Personality Type</li> <li>▶ Sharing Program Impression, Next Program Introduction,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2	Tea Mind, My Mi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Meditation, Chamna Tea Manners</li> <li>▶ Tea Museum Visiting</li> <li>▶ Knowing the Origin of Tea, the Effect of Tea, Tea Instrument Names</li> <li>▶ Feeling my mind through Color, Scent and Flavor of Tea</li> <li>▶ Sharing Program Impression, Next Program Introduction,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3	Making Tea for 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Meditation, Chamna Tea Manners</li> <li>▶ Making Body, Mind, Spirit Tea through “Bupung Scent Tea Instructions”</li> <li>▶ Sharing Program Impression, Next Program Introduction,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4	Encounter my a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Meditation, Chamna Tea Manners</li> <li>▶ The Dice of Emotion, Expressing various emotion words</li> <li>▶ Sharing Program Impression, Next Program Introduction,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5	Expressing Anger, Comforting An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Meditation, Chamna Tea Manners</li> <li>▶ Empty Tea Table- Inner “I”</li> <li>▶ Sharing Program Impression, Next Program Introduction,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6	Career Explo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Meditation, Chamna Tea Manners</li> <li>▶ Dream Start “Seeking Hwarang’s Dream ~”</li> <li>▶ Drawing my own figure as future careerman through job conditions and job world</li> <li>▶ Sharing Program Impression, Next Program Introduction,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7	Treating Friends with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Meditation, Chamna Tea Manners</li> <li>▶ Guest Reception Tea Manners</li> <li>▶ Sharing Program Impression, Next Program Introduction,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8	Treating Family with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Meditation, Chamna Tea Manners</li> <li>▶ Manners to Parents</li> <li>▶ Family Tea Manners</li> <li>▶ Making Merits Fan</li> <li>▶ Family Counselling with Parents</li> <li>▶ Sharing Program Impression, Next Program Introduction,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9	Treating Community Elders with T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Meditation, Chamna Tea Manners</li> <li>▶ Service for Community Tea Meeting(Happiness Tea Manners)</li> <li>▶ Sharing Program Impression, Next Program Introduction,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10	Wrap up,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a Meditation, Chamna Tea Manners</li> <li>▶ Strength Reinforcement Tea Tailsman, Appreciation Journal(Hope Message)</li> <li>▶ Certificate Acquisition, Awarding Certificate of Merit</li> <li>▶ Sharing the Impression of all the program, Wrapping up after Meditation</li> </ul>

프로그램은 차 다루는 일과 관련 된 제반 동작, 즉 행동을 통한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차를 다른 사람과 함께 마시고 대접받는 과정 속에서 의사소통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도와준다.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 극복 및 정서 안정의 위한 비공식

적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정서적인 안정을 갖게 해주며, 그리고 인간의 내면 성장과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인지적 기능 향상 등에 목적을 두고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19].

본 연구에서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은 긍정적 경험, 행동조성 강화, 친구, 가족, 지역사회에서 차 대접하기를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perimental Group Juvenile Probationers

Experimental Group (Juvenile Probation)	Gender/Age	Education	Judge Disposition Type Classification (Disposal Period)	Judge Disposition Type Classification (Type of Crime)	Disposition of Probation Experience
1. laugh	F/15	Middle School	1	Fraud	1
2. ppongppong	M/14	"	2	Theft	1
3. sunshine	M/15	"	1, 2, 3, 5	Felony Theft	2
4. sky	M/15	"	2, 3	Violence	2
5. wings	M/13	"	1	Theft	1
6. orange	M/15	"	2, 3	Violence	3
7. tree	M/16	"	1, 2, 4	Theft	2
8. cool spring wind	M/15	"	1, 2, 3, 5	Injury	3
9. water melon	F/17	High School	2, 3	Theft	2
10. animal world	M/15	Middle School	1, 2, 3	Violence	2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 Group Juvenile Probationers

Experimental Group (Juvenile Probation)	Gender/Age	Education	Judge Disposition Type Classification (Disposal Period)	Judge Disposition Type Classification (Type of Crime)	Disposition of Probation Experience
1. Choi ○○	M/16	Middle school	1, 2, 4	Violence & Theft	1
2. Kim ○○	M/15	"	2	Violence	1
3. Lee ○○	M/14	"	2, 3	Violence	1
4. Cho ○○	F/18	High school	1	Fraud	1
5. An ○○	M/19	Drop out at High school 2 <sup>nd</sup> grade	1, 2, 3, 5	Felony Theft	2
6. Lee ○○	M/15	Middle school	2	Theft	1
7. Kang ○○	M/17	High school	1, 2, 4	Violence	2
8. Pak ○○	M/19	"	2, 3	Violence	1
9. Kim ○○	F/15	Middle school	1	Theft	1
10. O ○○	M/16	"	1, 2, 3, 5	Injury	2

통해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편안하고 따뜻한 차문화치료적 환경을 제공하여 긍정적 경험의 함입, 정서적 연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행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역기능 돌출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 긍정적 측면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안아주기, 받아주기, 버텨주기로 수용하였다. 또한 ‘빈 찻상 기법-내면아이’를 통해 어린 시절의 상처를 직면하고 이해하고 명료화와 해석으로 관계치료를 하였다.

이와 같이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의 구조가 안아주기, 돌봐주기, 버텨주기의 흐름 속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이 증가하고,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과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가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선정하였다. 소년보호처분은 가정법원의 처분유형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2호 처분인 수강명령 40시간을 공통으로 부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 친구, 가족, 지역사회 어른신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요소까지 프로그램에 반영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집단 <Table 1>과 통제집단 <Table

<Table 4> The Sub-Scale Structure and Internal Reliability of Domain-specific Self-Efficacy

Domain	Number of Questions	Questions	Reliability
General Self-Efficacy	17	1,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88
Social Self-Efficacy	6	18*, 19, 20*, 21, 22*, 23	.62
<b>Total</b>	<b>23</b>		<b>.87</b>

\*Reverse Question

<Table 5> Homogeneity Verific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Division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Z
			M(SD)	M(SD)	
Juvenile Probationers	Self-Efficacy	General Self-Efficacy	52.5(7.00)	54.2(10.32)	-1.222
		Social Self-Efficacy	21.1(3.24)	20.9(3.65)	-.296
	Total		73.6(6.02)	75.1(11.0)	-.233

\* $p < .05$  \*\* $p < .01$  \*\*\* $p < .001$

2>의 특징들을 각각 비교하였다.

### 3.2 측정도구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Shere,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and Rogers(1982) 등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에 입각하여 제작한 것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하위 요인으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인 일반적 자기효능감(17문항)과 대인관련 사회적 기술 등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기효능감(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혜영(1995)이 번역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그의 전체 검사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기효능감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7로 나타났다.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된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과 내적신뢰도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맨-유티니 유 검증(Mann-Whitney U 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에서의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윌콕슨 부호-서열 검증(Willcoxon Matched-Pari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였다. 윌콕슨 부호-서열 검증은 자료의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기 어렵고 표본수가 적을 때,

자료의 분포에 대한 연속성과 독립성에 대한 가정만을 전제로 t 검정을 대신하여 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모수 통계방법이다.

## 4. 연구결과

### 4.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주요변수들의 동질성 검증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주요 변수들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해 보았다. 다음의 <Table 5>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주요변수들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위의 <Table 5>에서 자기효능감을 하위 요인별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52.5(SD 7.00), 통제집단이 평균 54.2(SD 10.32)이며,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이 평균 21.2(SD 3.24), 통제집단이 평균 20.9(SD 3.65)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전체 평균은 실험집단이 평균 73.6(SD 6.02), 통제집단이 평균 75.1(SD 11.0)이었고, 각 하위 요인들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자기효능감 점수는 동질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Before and After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Division		N	Before	After	Z	
			M(SD)	M(SD)		
Experimental Group	General Self-Efficacy	- Ranking + Ranking Ties Total	1 <sup>a</sup> 9 <sup>b</sup> 0 <sup>c</sup> 10	52.4(7.61)	63.7(12.1)	-2.198 <sup>g*</sup>
	Social Self-Efficacy	- Ranking + Ranking Ties Total	0 <sup>d</sup> 9 <sup>e</sup> 1 <sup>f</sup> 10	21.3(3.12)	25.9(3.65)	-2.682 <sup>g***</sup>
Control Group	General Self-Efficacy	- Ranking + Ranking Ties Total	5 <sup>a</sup> 5 <sup>b</sup> 0 <sup>c</sup> 10	56.9(10.00)	56.9(9.90)	0.00 <sup>g****</sup>
	Social Self-Efficacy	- Ranking + Ranking Ties Total	6 <sup>d</sup> 4 <sup>e</sup> 0 <sup>f</sup> 10	19.7(4.55)	19.3(4.21)	-.642 <sup>h</sup>

\* $p < .05$  \*\* $p < .01$  \*\*\* $p < .001$

- a. After General Self-Efficacy < Before General Self-Efficacy
- b. After General Self-Efficacy > Before General Self-Efficacy
- c. After General Self-Efficacy = Before General Self-Efficacy
- d. After Social Self-Efficacy < Before Social Self-Efficacy
- e. After Social Self-Efficacy > Before Social Self-Efficacy
- f. After Social Self-Efficacy = Before Social Self-Efficacy
- g. Based on the rank of Negative
- h. Based on the rank of Positive

#### 4.2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양적 자기효능감 변화분석

다음의 <Table 6>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의 사전사후를 비교해 본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실험집단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사전 검사에서 평균 52.4(SD 7.61)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63.7(SD 12.1)로 나타나 11.3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21.3(SD 3.12)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5.9(SD 3.65)으로 나타나 4.6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3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질적 자기효능감 변화분석

프로그램 초기에는 보호관찰 청소년들끼리 관계 형성이 미흡해 서먹하고 낯설어 했다. 몹시 긴장하며 무표정으로 고개도 숙이고 볼펜으로 장난을 하며, 말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작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겉눈질을 하면서 발표를 하였다. 자신 소개를 인디언 별칭으로 한 다음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해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였다.

인터뷰를 하면서도 쑥스러워 눈을 서로 맞추지 못하지만 장난스럽게 참가하였다. 명상시에도 눈을 제대로 안감고 겉눈치를 하면서 온 몸 전체를 부정적인 반응으로 임하였지만, 처음 해 보는 것이라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차의 효능을 알고 옛 선조들이 만들었다는 ‘부풍향차보’를 재연하면서 내차를 제다하였다. 또한 억눌렸던 부정적 감정 분노 표출을 하고 참나다례를 통한 긍정적

경험으로 나와의 만남을 가졌다.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표정들이 많이 밝아지며, 옆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눈길 많이 부드러워졌다. 다음은 대상자들의 적은 소감문의 일부이다.

- “잠오고 배고프다” (날개)
- “내손으로 직접 차를 우려낼 수 있는 것이 신기하다” (시원한 봄바람)
-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지루하다” (웃자)
- “잘은 모르지만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뽕뽕)
- “원래 급한 성격이었는데 좀 차분해졌다” (햇살)
- “차를 마시니 마음이 편해져갔다” (웃자)

프로그램 중기부터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 해 나갔다. 옆의 친구들과 장래 직업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 것 인지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 해 나갔다. 접빈다례를 통해 ‘대접 받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한테 차를 대접함으로써 예절을 익힐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으며, 언어로서도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대상자들의 적은 소감문의 일부이다.

- “주눅들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하고 싶다” (시원한 봄바람)
- “힘들어도 참고 있으며 좋은 날이 오겠지요” (굴)
- “자신감이 조금 생긴 듯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진 것 같다” (나무)
- “나의 장래를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웃자)
- “좀 마니 차분 해 지고 인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뽕뽕)
-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시니 기분이 개운하다” (나무)

프로그램 후기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문제를 그 자신의 고립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와 관계에 놓여 있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건디어 줌으로써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가족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차를 우려 대접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어르신들의 격려 및 지지가 많은 힘을 발휘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수업에 임했다고 보호관찰 소장님이 직접 ‘상’을 수여함으로써,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들이었다. 다음은 대상자들의 적은 소감문의 일부이다.

- “직접 차를 대접 해 드리고 절도 하였는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찼다” (햇살)
- “나의 장점이 이렇게 많은지 진짜 몰랐다” (웃자)
-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했고, 수고하셨습니다.” (나무)
- “내 자신이 이렇게 자랑스러워요”(굴)
- “어르신들의 격려에 힘을 얻을 수 있었고 마음이 행복해 졌다”(수박같은 시원함)
- “엄마께 효도 할 수 있어 감사해요” (햇살)
- “어른 공경하는 것도 새로이 알게 되었고 뜻 깊은 하루였다” (동물나라)
- “태어나서 침 상을 받아보아요” (뽕뽕)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본 프로그램 초기에는 관계 형성이 미흡해 서먹하고 낯설어 했으며, 몹시 긴장하며 무표정으로 고개도 숙이고 불췌으로 장난을 하며, 말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결눈질을 하면서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회차가 더해 갈수록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을 초대하기 위해 차를 우려 준비하고 자신을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으로 차 우리는 것을 매우 잘 수행 하였으며 오히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분노표출을 하고 난 후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 눈길도 부드러워졌다. 또한 중기에는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명상과 참나다례를 통해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 자신과 진행자에게 긍정적인 면을 찾아 격려 및 지지를 위한 의사소통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니 자신감에 찬 표정들이었다. 후기에서는 가계도를 통해 가족속의 자신을 직면하여 가족속의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건디어 줌으로써 부모와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정성껏 차를 우려 큰절과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대

접함으로서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맛보았고, 상장을 받음으로서 '해 내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따라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근원으로 차문화의 체험경험, 다례를 통한 정서적 긍정경험, 자격증획득의 성취 경험으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의 원인의 기본인 낮은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자기효능감의 변화과정을 검증하였다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개인의 문제행동인 비행 교정에만 초점을 두기 보다는 청소년기 특성상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한 참나다례와 친구들과 접빈다례, 가족관계의 조화를 도모하는 가족다례, 그리고 지역사회 어르신과 연계되는 행복다례를 개발하여 자기효능감을 나 자신, 친구, 가족, 지역사회까지 통합적으로 구체적인 체험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양적연구 결과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의 사전검사에서 평균 52.4(SD 7.61)이었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63.7(SD 12.1)로 나타나 11.3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21.3(SD 3.12)였으며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25.9(SD 3.65)으로 나타나 4.6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반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모두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질적 연구의 결과는 프로그램 초기에는 관계 형성이 미흡해 서로 서먹하고 낯설어 했으며, 몹시 긴장하며 무표정으로 고개도 숙이고 불펜으로 장난을 하며, 말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들리지 않을 정도로 결널질을 하면서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회차가 더해 갈수록 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차를 우리고 자신을 존중하

여 차를 대접하는 시간을 보냄으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 또한 분노표출을 하고 난 후 표정도 많이 밝아졌고 눈길도 부드러워졌다. 중기에는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명상과 참나다례를 통해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후기에는 가계도를 통해 가족속의 자신을 직면하여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견디어 줌으로서 가족관계의 유대감이 향상되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차를 우려 큰절과 함께 대접함으로서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맛보았고, 상장을 받음으로서 '해 내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으로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한 후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자기효능감이 양적·질적으로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20,21,22,23]에 비해 특히 자기효능감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프로그램에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참나다례와 나를 위한 차 만들기, 빈차상을 통한 분노표출 다루기, 진로탐색 내용으로 일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보호관찰 청소년들 자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친구, 가족, 지역사회 어르신 등을 함께 참여시킨 사회적 자기효능감 향상의 접근에 기인한 긍정적 결과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하자면,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시기상의 특성과 가족관계, 사회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겠다. 이러한 진행자의 관점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개발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과 차문화치료에 대한 지식을 겸비한 사회복지사의 양성도 요구된다. 따라서 교정복지 영역에서 사회복지사의 양적 증가 및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개발된 프로그램들과 경험을 공

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 및 보급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자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해 참여하였던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부분의 보호관찰 청소년 프로그램은 보호관찰 청소년 집단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므로 집단의 순수성이 저해되고 치료의 효과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령별 그리고 범죄 유형별, 처분기간별, 보호관찰 경험 등 다양한 유형별로 동질성이 확보된 치료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 REFERENCES

- [1] P. H. Oak, A Study about Conditions of Prob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System. Calibration Studies, Vol.52, pp.195-226, 2011.
- [2] E. O. Ha, and I. S. Kim, Effects of Tea-culture Therapy Program on Self-esteem Enhancement of Juveniles the Korean Tea Society. Vol.18 no.3, pp. 39-52, 2012.
- [3] J. M. Moon, The Status and Improvements of the Command System. Calibration Studies, Vol.38, pp.57-82, 2008.
- [4] H. S. Lee, The Effect of Involvement and Interaction about Integrated Physical Education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2006.
- [5] S. S. Park, B. Y. Koo, S. J. Kim, J. Y. Song, and Y. Y. Choi, The World of Wayward Children. Youth Counseling Reports, pp.1-149, 1995.
- [6] O. C. Choi,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pp.42-85, 2002.
- [7] Y. J. So, The Effects of Changes in Problem Behavior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of Juvenile. Dissertation, Seoul Women's University, 2007.
- [8] A. R. Lee, The Analysis of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Dissertation, Chungnam University, 2003.
- [9] J. Y. Song, The Effects of Effective Problem Solving Program Development and Self-efficacy Applying Realistic Advice Juvenile Probation. Dissertation, Myeongji University, 2005.
- [10] Crick, N., and Dodge, K. A Review of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Vol.115, 1994.
- [11] M. J. Jeong, The Effect of Reality Therapy on the Internal-external Control and Responsibility of Substance Abuse juveniles, Master's Dissertation, Gyeonguk University Education Graduate School, 1998.
- [12] M. S. Park, Problem Behavior Characteristics in Juvenile Probationers. Master's Dissertation. Gongju University, 2002.
- [13] C. G. Oh,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Communication·Family Conflict and Recidivism of Jjuvenile Delinquency. Master's Dissertation, Jeonb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7.
- [14] National Korean Institute, Standard Korean Grand Dictionary
- [15] J. G. Park, The Relationship among Career Resilience, Job Stressors,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Organization of Office Workers in Large Corporations. Master's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2.
- [16] O. R. Kim, The Effect of the Hope Improvement Group Program on the Hopeness and Self-esteem of the Juvenile Offenders in the Juvenile Protection Facilities, Master's Dissertation, Sangji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1.
- [17] Pierce J. L, Gardner D. G, Cumming L. L, and Dunham R. B, Organization-based Self-esteem: Construct Definition, Measuring,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32, pp.622-627, 1989.
- [18] J. H. Park, The Effect of Dance Activities on Physical Self-perception and Self-esteem, Master's Dissertation, Jeon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3.

- [19] J. J. Lee, The Task of Recent Juvenile Law Revision and Juvenile Probation System. Juvenile protection research, Vol.11, pp.159-194, 2008.
- [20] N. H. Kim,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ocial Skill Improvement Program for Juvenile Probationers. Doctor's Dissertation, Gyungseo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07.
- [21] C. I. Park, Emotional Stability of the Car Culture, Youth Programs and Self-efficacy-Women around the High Schoo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2010.
- [22] Y. R. Bae, Effects of Tea Ceremony Program on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of High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Korea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Mokpo National University
- [23] H. S. Lee, Primary Treatment of the Crisis of Youth Culture and Emotional Stability, Self-efficacy and Effects of Aggressive. Master's Thesis, Hard-university, 2011.

**김 인 숙(Kim, In Sook)**



- 1998년 2월 : 부산대학교 가정학과 (이학박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3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사회복지재활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 보호관찰, 차문화치료

· E-Mail : ts3260@daum.net